



지리산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자원봉사 운영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지난 13일 지리산국립공원 바래봉 일원 생물종 다양성 증진과 지역기업인 엔서가든(주 코빅스)의 ESG경영을 위한 훼손지 복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래봉 훼손지 복원을 통한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목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주)코빅스, 남원시, 지역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철쭉 등 자생식물 식재 및 생물학적 방제, 쓰레킹(쓰레기를 주우며 트레킹 하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업무협약 이행을 위하여 EM 및 수질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질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름다운사회재단, 완주 상관면에 라면 기부

(사)아름다운사회재단(대표 소광)이 완주군 상관면(면장 강형일)에 라면 100박스를 기부했다.

15일 상관면에 따르면 (사)아름다운사회재단은 시각 장애인 돌거노인 및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을 돕고자 하는 뜻을 같이한 의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현재는 일반 독자가 등 약 200여명이 매월 정기기부를 하고 있다.

이번 후원물품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은 것으로 돌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어려운 노인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강형일 상관면장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라면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남원소방서, 119소방 트롯 제조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초고령화 사회에 어르신 소방 안전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119소방 트롯제조'를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119소방 트롯제조는 화재 시 대처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터득할 수 있도록 119소방 트롯트에 실버 제조를 개발 접목해 어르신이 쉽고 재밌게 즐기면서 소방안전상식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제조이다.

남원소방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과 요양보호시설, 요양병원 등 주요 노인시설을 찾아 119소방 트롯과 함께 실버제조를 보급하며, 어르신들의 우울감, 고립감 해소에 큰 효능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농상생에 앞장서 나갈 것”

코레일유통, 무주군 초리마을 지역상생 실천

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기업인 코레일 유통이 1사촌 자매 결연을 맺은 무주군 초리 마을에서 도농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15일 코레일 유통의 무주군 초리마을 방문은 공공기관으로서 농촌생활 환경 개선 지원 및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코레일 유통은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코로나 19 PCR 검사 완료 등 방역조치 완료 후 초리마을을 찾아 마을 복지화관에 식기세척기 기부 및 마을정비 등 봉사활동 참여로 활력소 역할을 했다. 또 마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듣는 등 도농상생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레일 유통은 올해 6월 초리마을과 1사촌 자매결연 이후 마을 특산품 고추, 아로니아, 자두 등 특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도농상생을 위한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코레일 유통은 올해 초 ESG 경영을 선포하며 7대 원칙중 하나로 공공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선정하고

무주군 초리마을 외에도 경기도 연천군 횡성리 마을과도 자매 결연을 맺는 등 꾸준한 도농상생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군,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종열)는 지난 15일 지회 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로써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 노인 및 장애인 르신상 노인복지 기여자, 효행자 등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종열 지회장은 기념사에서 “노인이라고 해서 대접받기



만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자강불식의 자세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노인이 되고자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일하는 노인! 존경받는 노인!”이라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의 슬로건을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시대를 앞서간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을 감사히 생각하며, 어르신들을 공경과 예의로서 대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다. 어르신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진안 안천면 김호영 재경향우회장, 따뜻한 겨울이불 지원

진안군 안천면(면장 조영희)은 15일 관내 돌거노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겨울 이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관내 돌거노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고향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안천면 재경향우회 김호영 회장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500만원 상당의 겨울이불을 후원했으며, 그 동안



안에도 면민의 날 등 관내 행사에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어 고향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영희 면장은 “고향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김호영 향우회장에 감사하다”며 “면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신해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보성건설 김만성 대표, 진안읍에 100만원 기부

진안군 진안읍은 (유)보성건설 김만성 대표는 15일 진안읍(읍장 육원문)을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금창고’로 전달되어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보성건설은 이전부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이 남다른 기업으로 지난 3월 진안읍 착한가게 1호점으로 선정(매월 30만원 정기기부)된데 이어 100만 원을 일시 기부해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청·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 실천

진안군청 신협(이사장 양철승)은 15일 진안군의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물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전기요, 이불 등 난방용품 27개(100만원 상당)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 사회 공헌 재단에서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여 6회째를 맞는 본 캠페인은 전국 688개 신협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비롯하여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어부바박스를 나누어 지역 내 나눔 온도를 높일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부귀면,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 적극 나서

진안군 부귀면(면장 박춘선)과 부귀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석근)는 지난 15일 급속한 고령화,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에 따른 홀몸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부 확인 전화 추진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인부 확인 추진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으로 위원들의 구체적인 추진 열의와 부귀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다.

특히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겪고 있는 우울감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미리 안부를 확인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